

네팔, '부처님 탄생지' 문구 새긴 지폐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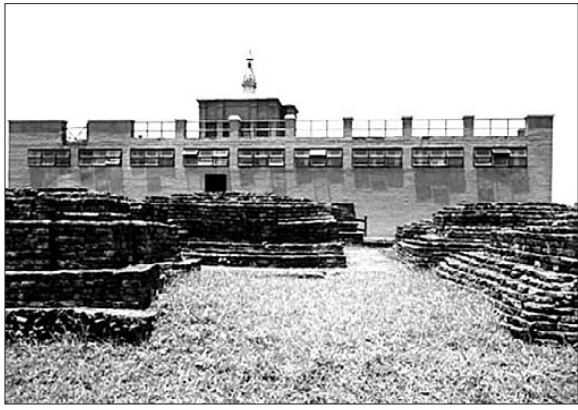
인도 TV 채널 'Zee TV'에 관련 광고 방영

'부처님 탄생지'를 명기한 지폐가 네팔에서 발행된다.

〈허핑턴포스트(Huffington Post)〉는 "네팔 정부가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라는 문구가 새겨진 '100 루피' 지폐를 10월 중순부터 시중에 유통한다"고 보도했다.

새롭게 제작한 '100루피' 앞면에는 고타마 붓다의 어머니 마야데비(Mayadevi) 초상화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Lumbini: The Birth-place of Lord Buddha(룸비니: 부처님 탄생지)"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와 함께 〈허핑턴포스트〉지는 "네팔 정부가 NC TV(네팔), Zee TV(인도)를 통해 '신권 발행'과 '룸비니가 부처님 탄생지'라는 점을 부각한 방송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고 덧붙이고, "신권을 발행하고, TV 광고를 내보낸 것은 '부처님 탄생지'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겠다는 네팔



마야데비 사원 전경.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동산은 마야데비 사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야데비 사원의 내경

정부의 의지"라고 풀이했다.

이에 앞서 인도 TV 채널인 Zee TV는 지난 9월 8일 '부처님 탄생지'를 인도'로 언급하는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방영해, 네팔 정부의 반발을 샀다. 이때, '카투만두 주재 인도 대사관'과 '네팔 케이블 TV 협회'가 중재에 나서 네팔 정부와 Zee TV 사이의 반목을 막을 수 있었다.

수 디르 파라 주리(Sudhir Parajuli, 케이블 TV 협회) 회장은 "나는 힌두교도이지만, 부처님께서

네팔의 룸비니에서 탄생하신 점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며 "화폐를 발행하고, 광고를 제작하는 것은 부처님 탄생지와 관련해 인도인과 세계인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님 탄생지'에 대한 오해의 발단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도계 미국인 언론인 페리드 자카리아(Fareed Zakaria, 당시 CNN 기자로 활동) 씨가 CNN의 토크쇼 '타임 매거진(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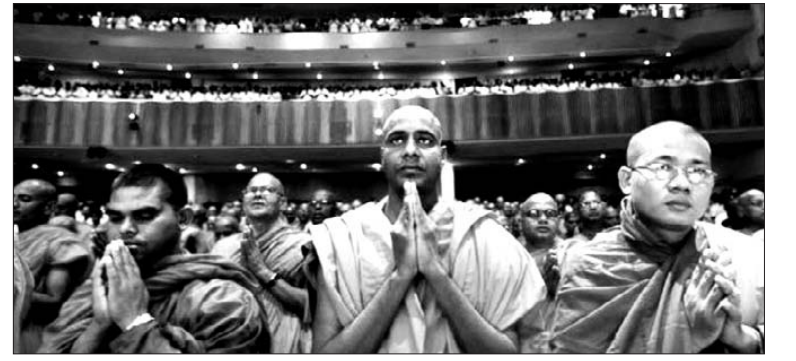
magazine)에서 '부처님 탄생지를 인도'로 언급했고, 이때부터 많은 세계인, 나아가 인도인이 '부처님 탄생지를 인도'라고 믿기 시작했다.

'부처님 탄생지'와 관련해 학자들은 "B.C. 623년 네팔 남부 평야에 위치한 네팔에서 부처님이 태어났다"고 "B.C. 249년 세워진 아쇼카 기둥의 기록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역시 '부처님은 네팔에서 탄생했다'는 것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아시아 불교계 '하나'로 뭉친다

'미국의 소리(VOA)', '불교계 '연맹', 결성되고 있다'



지난 9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 평화와 불교' 주제 국제회의의 전경

아시아 불교계를 회통할 '연맹(가칭)'이 결성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이하 VOA)가 보도해 주목된다. VOA는 "국가·민족의 벽을 넘어 각 아시아 불교계의 간극을 좁혀주고, 나아가 세계 종교로서 불교의 위상은 더욱 키울 새로운 연맹이 움트고 있다"고 전했다.

VOA는 연맹 결성준비위원 톱짱(Lobzang) 스님의 말을 인용, "지난달 33개국 불교계 지도자들이 인도 뭄바이(Mumbai)에서 '세계 평화와 불교(World Peace and Buddhism)'를 주제로 첫 국제회의를 개최, '새로운 연맹'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며 "이는 동시대 불교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연맹'

결성의 단초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VOA는 "지난 9월 열린 첫 국제회의에서 앞으로 결성될 '새로운 연맹'은 인도 구자라트(Gujarat),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마디아 프라데시(Madhya Pradesh) 등지에 흩어져 있는 100개 석굴 보존을 비롯해 아시아 각지의 불교유산을 보조하는 것을 최우선을 삼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톱짱 스님은 "결성준비위원회는 '새로운 연맹'에 중국 불교계도 동참하길 희망한다"며 "지난 9월 국제회의에 베이징대학 교수 등 중국불교계 대표들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로 무산됐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뻘아와티 스님, 컬럼비아대학 초청연사로 나서

'쉬프만 강의' 미국서 손꼽히는 명사 강연 프로그램



뻘아와티 스님. 올 봄 'Humanitarian Effort' 상을 수상한 스님은 10월 8일 컬럼비아대학교 종교학과의 초청으로 강연했다. 스님은 하버드대학 특별 강연 일정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첫 비구니 스님(상좌부)인 뻘아와티(Ven. Pannavati) 스님이 10월 8일 컬럼비아대학 초청으로 강단에 섰다.

미주리주 공영라디오(Mid-Missouri Public Radio)에서 발간하는 〈KBIA〉지는 "뻘아와티 스님이 '침례교도에서 불교까지'를 주제로 컬럼비아대학 부설 돌시 예배당(Dorsey Chapel)에서 학생과 교직원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초청 강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KBIA〉지에 따르면 이번 초청 강연은 '쉬프만 강의(Schiffman Lecture) 시리즈' 일환으로, 미국 사회에서 종교·인종·계층간 화합에 헌신한 뻘아와티 스님의 공로가 인정돼 마련됐다. 컬럼비아 대학위 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쉬프만 강의'는 정치·문화·교육·종교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 선보인 명사를 선정해 진행한다.

이번 강연에서 "모든 삶은 축복이며, 삶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우리는 그 축복을 나누어야 한다"며 "그것

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신 본성"이라고 강조한 뻘아와티 스님은 "우리는 경험을 평범한 의식 너머로까지 이끌어내야만, 그 과정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며 "지혜란 서구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예측할 수 있게 하는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쌓아야만 삶의 본질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BIA〉지는 "스님의 얼굴 표정은 풍부했고 손과 팔을 자유자재로 활용했다. 청중들 대부분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또한 스님과 청중 사이에는 활기가 있어 보였다"고 강연장 분위기를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현재 노스캐롤라주 헨더스빌(Hendersonville)에 머물며 '단순주의(Embracing Simplicity)의 집' 운영하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 '집 없는 청소년'들의 재활을 돕고 있다.

〈KBIA〉지에 따르면 △자기표현 양성 △예술·영상 교육 △직업 교육 △성인 멘토 결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순주의의 집'의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도 적극 수용되고 있다.

뻘아와티 스님은 이번 컬럼비아대학 초청 강연에 이어 하버드대학 특별 강연에도 나선다. 오종욱 편집위원

영국 삼예링 설립자 초제 아콩 사망

영 티베트 불교계 '아버지' ... 영 불교계 '비통'

영국 티베트 불교계의 '아버지' 초제 아콩(Chojé Akong) 스님이 '살해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영국 불교계가 '비통'에 휩싸였다.

〈더 텔레그래프(The Telegraph)〉지는 최근 "스코틀랜드에 삼예링(Samyé Ling) 사원을 개원한 초제 아콩 스님이 중국 청두 지역에서 살해됐다"고 보도했다.

초제 아콩 스님은 1963년 영국으로 망명, 1967년 삼예링 재단을 설립한 후, 스코틀랜드 덤프리스(Dumfries) 지역에 서구 최초의 티베

트 불교 사원 '삼예링'을 개원했다.

〈더 텔레그래프〉지는 인도 다람살라 인근 규토(Gyuto) 사원에서 보도한 칼마파(Karmapa)의 말을 인용, "나와 어린 시절 함께 보낸 아콩 스님은 티베트 장경을 보급하기 위해 헌신했고, 학교와 병원을 설립해 티베트의 미래를 밝힌 사회운동가였다"고 덧붙였다.

청두 경찰국은 "아콩 스님의 살해 용의자는 '돈 문제'로 다투던 조카와 그의 사주를 받은 개인 운전수"라고 밝혔다. 오종욱 편집위원



영국 삼예링 사원을 개원한 초제 아콩 스님

먹는 것은 'Yes', 말하는 것은 'No'

美 브룩클린 '묵언의 식사' 음식점 눈길

뉴욕 브룩클린에서 대화를 나누지 않는 채, 식사만 해야 하는 레스토랑 '이화재'.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지에 따르면, 브룩클린의 그린포인트(Greenpoint) 지역의 '이트(Eat)'라는 레스토랑이 매주 일요일마다 '묵언의 식사'를 영업 정책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곳의 일요일 영업 시작은 오후 8시로, 주로 인근 주민을 '저녁 만찬' 고객으로 맞이하고 있는데, 손님들은 주문 후 모든 코스가 끝나기 전까지 묵언해야 한다.

"인도 여행에서 보고 배운 '불교 수행법'에서 '묵언의 식사'를 생각했다"는 니콜라스 나우만(Nicholas Nauman, '이트' 수석 주방장) 씨는 "바쁜 일상에 쫓기는 현대인들이 일주일 중 하루만이라도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과 음식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식사 시간



묵언의 식사를 하는 손님들.

을 가질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 더욱 평온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곳의 저녁 만찬은 마치 명상과도 같은 것" 타냐 스틸(Tanya Steel) 〈에피큐리어스(Epicurious)〉 편집장은 "묵언은 그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만찬을 하는 동안 그 '이야기'란 '나를 바라보는 것'이었다"며 "이 점이 뉴욕커(New Yorker)의 판심을 집중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법.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 ~ 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음악문화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심리상담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禪大韓佛敎 曹溪宗

새롭게 변화하는 불법시대! 이땅에 부처님 법 뿌리내리고 불교의 진리와 위상을 드높일 중도를 모십니다. 또한 새롭게 새로운 중단에서 중도의 단합및사회봉사와 중단 활동에 동참하실 스님을정성다해 모십니다.

입종안내

- 승적원부 (본종입종양식 1통)
- 타종단승려는 승려증 복사본 1통
- 주민등록증 복사본 앞뒤 1장
- 사찰전경 내외부 사진 각 1장
- 반명함사진 4매 (대가가사수한 사진)
- 승려증, 입명장, 사찰등록증, 발급

총무원: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55길 9

① 禪 대한불교 조계종

중단 가입 문의: (02) 959-1825

대한禪報신문사 문의: (02) 962-3467

불교중단사업부 문의: 070-7391-7767

본 중단은 출판 및 불교사업의 수익금은 중단 운영기금으로 쓰입니다.

중도가 잘 되어야 중단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 ~ 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제 집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 모집 중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큰절할 때, 땀 흡수를 위해 방석위에 덮어 놓는

특히 참회진언 타올

100% 순면...

참회진언 대타올 및 가방 70 x 138cm, 450g, 30수, 20,000원

땀 흡수 안되는 마타웁은 불편... 특허형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큰절할때 40x80cm 160g 30수 5,000원

얼굴과 손을 닦을 때 세수면진언 타올

※ 타올에 인쇄 합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팩스 0505-115-1616 / 농협 421012-52-195511 박희철(010-5481-0194)